

## 간호원의 근무성적 예측변인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정 현 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자 려

### I. 서 론

### II. 대상 및 방법

- A. 연구의 대상과 표집
- B. 연구의 도구 및 자료
- C. 자료처리방법

### III. 성 적

- A. 재학성적과 근무성적의 상관도
- B. 재학성적의 상·하 집단별 근무성적의 비교

### C. 근무성적 하위변인별 상관도

- D. 근무총합성적의 상하에 따른 하위변인별 근무성적의 경향
- E. 근무성적에 대한 재학성적 변인별 예언변량의 비율

### IV. 고 찰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I. 서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의 학업성적 예측에 관한 연구”의 주급 연구이다. 즉, 선행 연구의 제언에서 입시성적이나 재학성적이 졸업 후 간호원의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공헌하는가를 주급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sup>1)</sup>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서 시도된 것이라고 하겠다.

간호대학 입학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하여 4년후 임상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도 좋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왜냐하면 입학시험이란 장래 간호원으로서의 직무효율성을 예측 판정하는 척도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여기서 졸업 후 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에 대한 간호대학 입학시험성적의 예언 타당도 검증은 훌륭한 간호원 지방생을 선발하는 의거점이 된다고 하겠다.

간호대학 입학시험은 간호대학에 입학한 후 학문적 성공 여부는 물론 간호원으로서의 적성여부를 가려냄으로써 훌륭한 간호원을 배양하려는 간호대학의 원조적 기능을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그 선발의 의거점은 곧 간호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소홀하게 다룰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시성적이 졸업 후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이러한 선발의 의거점을 확실히 하고 단서가 된다는 뜻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간호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걸쳐서 간호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크게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자질 함양은 보통 재학중의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간호원으로서의 일반적 자질이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을 하게 되거나 퇴학을 당하게 된다.

1) 정현숙, 강규숙, “간호대학 학생의 학업성적 예측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집 제 1집, 연세대학교 간호학연구소, 1976, p 27-51.

2) 상계서 p 37.

3) E. F. Lindquist, *Educational Measurement*, Washington D. 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51, pp621-627.

따라서 간호대학 재학 시절의 성적이 좋으면 좋을 수록 간호원으로서의 자질이 바람직한 학생이라고 평가되고 이런 학생일수록 졸업 후에도 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기 쉬울 것이다.) 이와같이 입학성적이 좋고 재학성적이 좋을 때에는 졸업 후 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도 좋을 것이 예상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통계적 검증을 거친 사실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적 검증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입시성적과 재학성적이 갖는 예언 타당도를 검증해 봄으로써 졸업 후 간호원의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어떤 변인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 시도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의 입시성적은 졸업 후 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둘째, 간호대학 3.4학년 재학성적중 전공 이론 성적, 임상실습 성적 및 전공 이론과 임상실습 성적을 합한 총합 성적은 졸업 후 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각각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셋째, 근무성적 하위 변인 간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넷째, 간호원의 근무성적 예측 변인 중 어떤 변인의 예측력이 가장 큰가?

## II. 대상 및 방법

### A. 연구의 대상과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을 1970년도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중 유급하지 않고 4년을 수료한 학생 68명중 현재 연세의료원에서 임상간호원으로 재직 근무중인 49명을 선정 표집하였다.

### B. 연구의 도구 및 자료

#### 1. 입시성적

1970년 연세대학 입시과목인 국어(I) 수학(I), 영어, 선택과목(물리, 화학, 생물, 가정 중 택일)의 총점별 성적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재학성적

학적부에 기재된 전공 이론성적과 임상실습 성적을 사용하였다. 1학년 교양학부 성적과 임상실습

성적이 없는 2학년 성적은 자료에서 제외하고 3.4학년시점의 성적만이 사용되었다.

#### a. 전공 이론(교과) 성적

3.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 성적의 평균 성적이 사용되었다.

#### b. 임상실습 성적

3.4학년 실습성적의 평균 점수가 사용되었다.

#### c. 재학 총합 성적

3.4학년의 전공 이론성적과 임상실습 성적을 모두 합한 총합 평균 성적이 사용되었다.

#### d. 근무 성적

임상 근무 성적 평점은 매 6개월마다 간호과 주관하에 실시되었고 평점은 근무 부처별로 수간호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평점 기준은 간호원의 태도(nursing attitude) 능력(nursing activity) 기능(nursing skill) 건강(health), 간호윤리(nursing ethics)의 다섯가지 영역에 걸쳐 각각 100점 만점으로 근무 성적이 평점되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곧 근무 총합성적으로 처리, 사용되었다. 근무 성적은 간호원으로 채용 임용된 후 12개월 간의 근무 성적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자료로 삼았다. 근무 성적의 신뢰도 계수는 半分法(Split half method)에 의해서  $r = +0.84$ 로 나타났다.

## C. 자료 처리 방법

재학 성적과 근무 성적간의 상관도 및 근무 성적 하위 변인간의 상관도는 Pearson의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으며 그 유의성은 T-test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재학 성적의 上下 집단별 근무 성적의 비교는 역시 T-test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그리고 재학 성적 각 변인의 예언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예언 변량(predicted variance)이 산출되었다.

## III. 성 적

연구의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재학 성적과 근무 성적의 상관도

입학시험 성적, 3.4학년 교과(전공)이론평균 성적, 3.4학년 임상실습 평균 성적 및 3.4학년 총 평균 성적(이론과 실습의 총합 성적)등 변인과 근무

4) 방용자, "간호원의 근무성적 예측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4권 제3호, 1974, p57.

무 성적 평균 및 근무 성적 하위 변인과의 상관도는 표-1과 같다.

표-1. 재학 성적과 근무 성적의 상관도

재학 성적변인	근무성적변인	근무성적 평 균	근 무 성 적 하 위 변 인				
			건강	기능	간호윤리	능력	태도
입 학 성 적		-.06	.05	-.17	-.19	.01	-.07
이 론		.20	.06	.24*	.15	.23*	.17
실 습		***	.26*	.32	.36**	.36**	.31*
이론+실습		.15	.05	.16	.13	.18	.13

\*P < 0.05    \*\*P < 0.01    \*\*\* P < 0.001

표-1에 의하면 입학 성적과 졸업 후 임상간호원으로서의 근무 성적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근무성적에 대한 입학 성적이 가지는 예언 타당도는 기대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한편 3.4학년이 교과 이론 평균성적과 근무 성적 평균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고 오직 하위 변인인 기능과 능력면에서만 5% 유의 수준에서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임상간호원으

로서의 기능과 능력 특성은 재학시절의 교과 이론성적으로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3.4학년 시절의 임상실습 성적은 졸업 후 임상간호원으로서의 근무 성적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 시절의 임상실습이 갖는 예언타당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졸업 후 임상간호원으로서의 근무 성적에 미치는 큰 요인의 하나는 재학 시절의 임상실습 성적 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3.4학년 시절의 이론과 실습의 총합성과 근무 성적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졸업 후 임상간호원으로서의 근무 성적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3.4학년 시절의 총합적 성적은 그 예언타당도가 비교적 낮음을 알아볼 수 있다.

B. 재학성적의 상·하 집단별 근무 성적의 비교.

1. 입시성적의 상·하에 따른 근무 성적의 경향.

1970년도 입학시험 성적의 상·하에 따른 졸업 후 임상간호원으로서의 근무 성적의 경향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2. 입시성적별 근무 성적의 경향 비교

근무 성적변인	입시성적별 경향치	입 시 성 적		t	p
		150점 미만 (N=16)	150점 이상 (N=33)		
총 합 성 적	M	85.74	86.12	0.20	N. S
	σ	7.52	5.63		
건 강	M	86.25	87.06	0.35	N. S
	σ	8.20	7.39		
기 능	M	85.72	84.61	0.52	N. S
	σ	7.83	6.60		
간 호 윤 리	M	86.46	86.74	0.15	N. S
	σ	7.08	5.81		
능 력	M	84.24	84.88	0.27	N. S
	σ	9.25	7.11		
태 도	M	86.22	87.52	0.60	N. S
	σ	7.43	6.94		

표-2에 의하면 입학시험 성적의 상·하에 따른 졸업 후 근무 성적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입시성적의 상하가 졸업 후 근무 성적의 경향을 추적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유의하지 못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2. 이론성적 상·하집단에 따른 근무 성적의 경향.

3.4학년 시절의 교과 이론 평균 성적의 상·하 집단별 졸업 후 근무 성적의 경향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표-3 교과이론 성적별 근무성적의 경향비교

근무 성적변인	이론성적별 상하 집단 경향치	교 과 이 론 성 적		t	p
		2.9 이하 (N = 29)	3.0 이상 (N = 20)		
총 합 성 적	M	85.40	86.86	0.80	N. S
	$\sigma$	6.16	6.39		
전 강	M	86.52	87.20	0.31	N. S
	$\sigma$	8.55	6.14		
기 능	M	84.31	85.93	0.80	N. S
	$\sigma$	6.43	7.68		
간 호 윤 리	M	86.01	87.57	0.87	N. S
	$\sigma$	6.01	6.32		
능 력	M	83.79	85.95	0.95	N. S
	$\sigma$	7.62	8.02		
태 도	M	86.60	87.80	0.58	N. S
	$\sigma$	7.14	7.04		

표-3에 의하면 재학 성적의 하나인 3.4학년 시절의 전공 교과 이론성적의 上·下에 따른 졸업 후 임상간호원으로서의 근무 성적간에는 유의한 차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3.4학년 시절의 교과 이론 성적의 높고 낮음은 졸업 후 근무 성적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3. 임상 실습성적의 上·下에 따른 근무 성적경향.

3.4 학년 시절의 임상실습 성적의 上·下에 따른 졸업 후 근무 성적을 비교하면 표-4와 같다.

표-4 임상실습성적별 근무성적의 비교

근무 성적변인	임상실습별 상하집단 경향치	임 상 실 습 성 적		t	p
		84점이하 (N = 2)	85점이상 (N = 47)		
총 합 성 적	M	77.00	86.34	1.99	P < 0.05
	$\sigma$	0.56	6.13		
전 강	M	80.00	87.06	1.30	N. S
	$\sigma$	0.00	1.11		
기 능	M	76.75	85.27	1.52	N. S
	$\sigma$	1.06	6.91		
간 호 윤 리	M	78.35	86.99	2.00	P < 0.05
	$\sigma$	2.89	6.04		
능 력	M	75.00	85.08	1.84	P < 0.1
	$\sigma$	0.00	7.67		
태 도	M	79.25	87.43	1.63	N. S
	$\sigma$	1.06	7.01		

표-4에 의하면 3.4학년 시절의 임상실습 성적에 따른 상·하 집단별 졸업 후 근무 성적의 종합성적에 있어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임상실습 성적이

높을수록 근무 성적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고 보겠다. 또한 근무 성적의 하위 변인인 간호윤리면에서도 임상실습 성적이 높을수록 간호윤리면에서의 근무 성

적이 좋음을 알아볼 수 있다. 능력면에서는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다른 하위 변인인 건강, 기능, 태도면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재학 종합 성적의 上·下에 따른 근무 성적의

경향.

3.4학년 시절의 이론 성적과 임상실습 성적을 종합한 성적의 上·下에 따른 근무 성적을 비교하면 표-5와 같다.

표 5 5. 재학종합성적별 근무성적 비교

재학종합성적별 上 下 집단 근무성적변인	경향치	재 학 총 합 성 적		t	p
		2.9 이하 (N = 26)	3.0 이상 (N = 23)		
근무종합성적	M	84.97	87.15	1.22	N. S
	$\sigma$	6.37	5.99		
전    강	M	86.35	87.30	0.44	N. S
	$\sigma$	8.49	6.59		
기    능	M	84.17	85.87	0.85	N. S
	$\sigma$	6.86	7.07		
간 호 윤 리	M	85.73	87.68	1.10	N. S
	$\sigma$	6.33	5.97		
능    력	M	82.69	86.91	1.96	P < 0.05
	$\sigma$	7.45	7.69		
태    도	M	86.17	88.13	0.97	N. S
	$\sigma$	7.37	6.69		

표-5에 이론과 실습을 합한 재학 종합 성적의 上·下에 따른 근무 성적은 하위 변인인 능력면에서만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그 밖의 변인 별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3.4학년 시절의 재학 종합 성적이 좋을 수록

졸업 후 근무면에서의 능력 점수가 좋음을 시사해 준다.

C 근무성적 하위변인 별 상관도.

근무 성적 하위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보면 표-6과 같다.

표-6. 근무성적 하위변인간의 상관도

	전   강	기   능	간호윤리	능   력	태   도	종합성적
전   강	—	0.58 ***	0.57 ***	0.60 ***	0.61 ***	0.78 ***
기   능		—	0.78 ***	0.81 ***	0.86 ***	0.92 ***
간호윤리			—	0.74 ***	0.73 ***	0.86 ***
능   력				—	0.71 ***	0.91 ***
태   도					—	0.91 ***

\*\*\*P < 0.001

표-6에 의하면 근무성적 하위변인간은 물론 각 하위변인과 근무 종합성적간에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하위변인이 갖는 근무 종합성적의 주정율은 유의하게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하위변인은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공통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는 사실까지도 시사 받을 수 있겠다.

D. 근무 종합성적의 上·下에 따른 하위변인별 근무성적의 경향.

졸업 후 근무성적의 종합 평균성적의 上·下에 따른 5개 하위변인별 근무성적의 경향을 비교하면 표-7과 같다.

표-7. 근무 종합성적별 하위 근무 성적의 경향비교

근무 성적하위변인	근무종합성적별 경향치 上下집단	근무종합성적		t	P
		84점이하 (N=20)	85점이상 (N=29)		
견 강	M	81.20	90.65	5.40	P <0.001
	$\sigma$	5.57	6.32		
기 능	M	78.53	89.41	8.52	P <0.001
	$\sigma$	5.05	3.88		
간 호 윤 리	M	81.63	90.10	6.36	P <0.001
	$\sigma$	3.79	5.04		
능 력	M	77.77	89.43	7.63	P <0.001
	$\sigma$	6.09	4.59		
태 도	M	79.90	92.05	11.33	P <0.001
	$\sigma$	3.92	3.53		

표-7에 의하면 근무 종합성적의 上·下 집단에 따른 하위 근무성적간에는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근무 종합성적이 좋은 수록 하위변인 간호윤리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간호윤리에 비해 더 건강하고 기능적이며 간호윤리적 적응율이 높고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으며 간호원으로서의 태도가 바람직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각 하위변인 성적의 표집타당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보겠다.

E. 근무성적에 대한 재학성적 변인별 예측 변량의 비율.

표-1에 나타난 결과에 입각해서 근무성적 변량에 대한 각 재학성적 변인의 예언변량(predicted variance)의 비율 즉 전체변량 중 각 재학 성적 변인에 의해서 예측된 근무성적의 변량의 비율을 나타내 보면 표-8과 같다.

표-8. 각 재학성적 변인의 예언변량의 비율

	입시성적	이론성적	실습성적	이론+실습성적
타당도계수	-.06	.20	.37	.15
예측변량	0.0036	0.04	0.1369	0.0225
예측비율	0.36%	4%	13.69%	2.25%

표-8에 의하면 예언변량 즉 근무성적 예언에 이바지하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비교해 보면 임상실습성적의 예측 비율이 13.69%로 시 제일 높고 입시성적의 예측 비율은 0.36%로 시 제일 낮다고 보겠다. 즉 표-8은 재학성적과 졸업후의 근무성적을 예측하려고 할 때 각 변인의 예언

비율을 시사하는 결과인데 하기 4 변인중 임상실습성적의 예측 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IV. 고 찰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근무성적에 대한 입시성적이 갖는 예언타당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간호대학 학생의 학업성적 예측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입시성적과 재학 성적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발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시성적과 근무성적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입시성적이 갖고 있는 예측타당도가 매우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재학성적은 주로 비행동적 차원에서의 평가 즉 기능적 정의적 실제적 활동의 척도에의해 이루어진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간호대학 입시성적은 완전한 지적 활동의 척도임으로 자연히 재학성적과의 상관도를 높여주고 근무성적간의 상관도를 낮아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데서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선행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은 입시성적과 재학성적과의 유의한 상관은 이를 입증해 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둘째, 재학성적과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은 재학 종합성적이냐 교과 이론성적이 아니라 3.4학년 시의 임상실습 성적이란

점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근무성적이나 임상실습 성적 모두가 실제적 차원에서의 기술적 정적적 활동의 평가라는 점에서 그 상관도가 높을 것을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졸업 후 간호원으로서의 임상간호 활동은 재학시의 임상실습 활동이 연장에 불과하리 만큼 그 역할과 과업이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임상실습 성적이 좋으면 졸업 후 간호원으로서의 임상근무 성적도 좋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sup>5)</sup> 이와같은 사실은 행하면서 배우고(Learning by doing) 임상실습 교육이 간호교육의 방법상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시사해 주는 의의점이 된다고 하겠다.<sup>6)</sup>

이런 뜻에서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교육의 모체가 된다고 본다. 특히 이론과 실습성적을 합한 3.4학년 1학기의 재학 종합성적은 오늘날 졸업후 간호원 채용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근무성적 예측 비율이 교과 이론성적이나 임상실습 성적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선발 채용 요건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고 보겠다.

셋째, 간호윤리, 태도 기능 능력 건강 등 근무성적 하위변인 상호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임상간호원들에 관한 근무성적 평정의 共同타당도가 높음을 시사해 주며 그 근무성적 평정도구기 매우 신뢰요소를 입증해 주는 계기가 된다고 보겠다.

임상간호원들은 흔히 자기들의 근무성적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평가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지만<sup>7)</sup>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 근거가 객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상간호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평정영역, 또는 평가방법이 오랜 시일을 통해 개선되어 오면서 신뢰도고 타당한 평정도도 고 발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근무성적 예측변인 즉 입시성적, 3.4학년 교과 이론성적 임상실습 성적 그리고 재학 종합성적 중 가장 효율적인 예측변인은 임상실습성적이란 점

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임상실습 성적이 곧 간호원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바람직한 전문직 간호원상의 모색에 있어서나 간호교육의 방향은 항상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임상실습이 간호원으로서의 경험을 심화시켜 주며 간호원으로서의 역할, 기능, 태도, 지식을 함양해 주는 행동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sup>8)</sup>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70년 연세대학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중 현재 연세의료원에 재직 근무중인 49명의 간호호원을 선정하여 이들의 입시성적과 재학성적이 갖는 졸업 후 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에 대한 예언타당도의 검증에 관한 시도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후 간호원의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헌하는 변인은 재학성적중의 임상실습 성적이며 다음으로는 교과 이론성적, 재학 종합성적이며 입시성적은 거의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2. 근무성적 평정 하위변인 즉 간호윤리, 기능, 태도, 능력, 건강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바이다.

제언

1. 간호교육과정에 있어서 임상실습의 비중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간호대학 입학생 선발과정에 있어서 졸업후 간호원으로서의 근무성적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성이나 동기등 비지적인 척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근무성적 하위변인이 갖는 장기근속 간호원에 대한 예언타당도의 검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간호원의 채용 요건 설정에 있어서 임상실습 성적의 비중을 크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5) E. M. Lentz and others, "Personality contrast among medical and surgical nurses," *Nursing Research*, 14: 43-47, 1965.

6) 전산호,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4권 1호, 1974, pp16-19.

7) 이성덕, *간호원근무 성적평정에 관한 일 연구*(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69) p62.

8) 전산호, *전제서*, no 2-4.

# 〈참고문헌〉

1. 방용자, "간호원 근무성적 예측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 4 권 3 호, 서울, 대한간호학회, pp57-62, 1974.
2. 이성덕, 간호원의 근무성적 명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69
3. 전산초,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 4 권 1 호, pp16-19, 1974.
4. 정현숙, 강규숙, "간호대학 학생의 학업성적 예측에 관한 연구," 간호학 논문집 제 1 집, 연세대학교 간호학연구소, pp27-51, 1976.
5. 최정훈, "입시성적 타당도에 관한 추급연구," 인문과학 제13권,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p209, 1965.
6. Komorita, N., "Students Opinions Toward Methods of Guidance and Evaluation in Clinical Nursing," *Nursing Research*, 14 : 163-167, 1965.
7. Hildegard, P., *Intersonal Relations in Nursing*, N. Y.;Putnam, 1952.
8. Holland, K. L., "The Prediction of College Grade from Personality and Aptitude Variables," *J. of Ed. Psy*, Vol, 51, pp245-254, 1960.
9. Lentz and others, "Personabty Contrast among Medical and Surgical Nurses," *Nursing Research*, 14 : 43-47, 1965.
10. Lindquist, E. F., *Educational Measurement*, Washington D, 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51.
11. Super D, E., *Appraising Vocational Fitness*. N. Y. :Harper ard Brothers, 1949.



\* Abstract \*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Predicting Variables of Nurses' Clinical Performance from College Achievements.**

**Hyun Sook Chung**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predict nurses' clinical performance from entrance examination of university and college achievements after graduation.

This is based upon a survey study, 49 nurses in Yon Sei Medical Center after graduation of college of nursing.

Correlation of college achievements, clinical performance and variables of nurses' clinical performance are produced using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of correlation tested by T-test.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Clinical performance of the college achievements is the best efficient variables in predicting the nurses' clinical performance after graduation and next theory scholastic total achievements and ontrance examination the last.
2.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nurses' clinical perfomance rating variables as nursing ethics, nursing skills, achievements, attitude, the state of health.